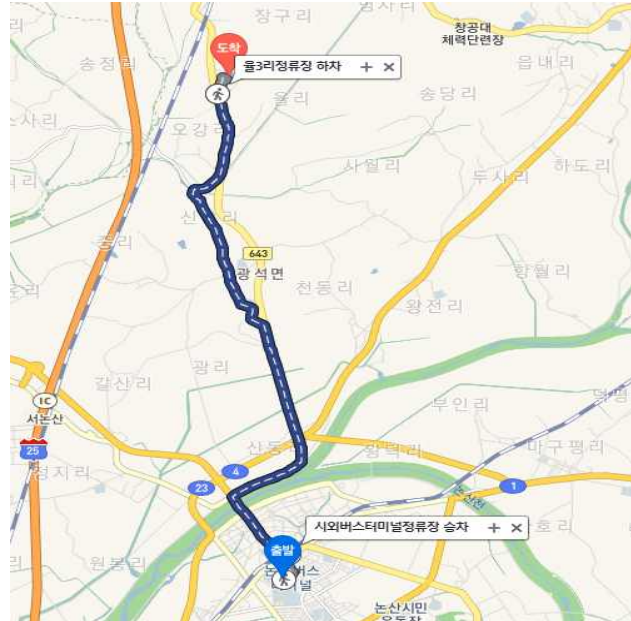


성광원

주소 : 논산시 광석면 장마루로598번길 27 (옛 주소 : 광석면 울리 3구 278번지 성광농장)

찾아가는 길(논산시외버스터미널 정류장 607,601번 버스-> 울3리 정류장 하차)



성광원은 1956년 설립자 신부님께서 논산 성당 주임으로 계실 때에, 논산 성당의 신자였던 라 다두라는 나환자의 어머니가 마을로 들어오지 못하고 외진 곳에서 살고 있는 아들을 도와달라고 간청하여 이를 도와주면서 시작되었다. 설립자께서는 나환자 이동 병원 진료를 주선하였고, 이들이 서로 돕고 살도록 양생원을 발족하여 가톨릭구제회에서 구호를 받게 하였다. 1960년에 양생원이란 이름을 성광원으로 개칭하여 현재까지 이르게 되었다.

백석공소에서 자동차로 20분 정도의 거리에 있다. 지금은 ‘성광농장’이라고 불리며 ‘성광원 천주교회’라고 하기도 한다. 나환자 집성촌의 규모는 큰 편이며, 마을 내에 양로원도 있다. 이곳의 김재형 노렌조 할아버지는 양로원에 계시는데 가장 연세가 많으신 분으로 설립자를 잘 아시는 분이시다. 성당과 사택정원이 아름답게 꾸며져 있으며 사택에 숙박이 가능하다. 숙박을 할 때에는 미리 논산 대교동 성당 신부님께 연락을 하면 된다.



(설립자 신부님 성광원 방문)



(현재 성당)

독서 자료

회고 성광원 8대 대표 윤승길

성광원의 초창기 이름은 양생원이다. 1956년 3, 4월경에는 현재 위치의 앞 동네에 자리 했었는데 외진 곳으로 일반 사람들과의 접촉이 전혀 없었다. 또한 정부로부터 어떤 대책도 없었다. 당시 10세대 정도가 살고 있었는데 그 중에는 더러 신자도 있었다. 이 중 일부는 치료를 받다 웬만큼 완치가 되면 이곳으로 와서 살았다. 처음 양생원의 발단은 다음과 같다. 논산 시내에 거주하는 한 나환자의 어머니가 성 신부님께 와서 간절히 청했다. 자기 아들 라 다두가 나병이 걸려 마을에서 못 살고 외진 곳에서 사는데 도와 달라는 것이었다. 성 신부님께서는 라 다두 어머니의 청을 받아들여 진료반을 보내 주신 것이 계기가 되어 이때부터 나환자를 위한 병원 진료와 시작되었다. 이 외진 곳이 나환자촌으로 정착된 경위이다. 이들은 대부분 결식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래서 진료반이 이곳에 올 때는 서울 NCWC의 보조로 밀가루, 옥수수 등과 구호품을 가지고 왔다. 이렇게 해야만 나환자들이 치료를 받으러 왔다. 이후 나환자 집단이 점점 불어났고 성 신부님께서는 이를 확장하시려 구제 신청을 해서 논산 본당을 통해 정식으로 밀가루, 옥수수 가루가 나왔다. 그 후 성 신부님 후임으로 오신 노 신부님께서 성 신부님의 부탁을 받고 적극적으로 후원하게 되었다. 그분은 전주에 있는 나환자 정착 마을을 다 돌아다니시며 답사와 실태 조사를 하고 나서 성광원을 설립할 계획을 하고 진행시키셨다.

1960년 5월부터 성광원이라 했는데 이는 당시 보사부 만성병 과장으로 재직 중이던 전진문씨가 이름을 하였다. 참으로 50년대는 생계 문제가 힘들었던 시대였다. 다리가 아파도 얻어 와서 먹고 살아야만 했다. 또한 나환자 2세를 위한 교육 문제도 심각했다. 특히 성 신부님이 논산 주임 신부로 계실 때는 이곳은 말 그대로 황무지였다. 성 신부님 주선으로 흙벽돌로 된 집 7채와 소집(우사) 1채를 지었다. 복숭아나무도 심어 주셨다. 판공성사 때가 되면 수단을 입으시고 오토바이를 타고 오시어 성사를 주시는 등 그들의 영적 보살핌도 잊지 않으셨다. 차츰 나환자들이 모여 들고 숫자가 늘어감에 따라 정부의 도움을 받게 되었다. 정부의 음성 나환자 정책 사업으로 충남 나협회에서 임야를 제공해 준 것이 그 시작이 되었다. 1960년 5월에 20정 7단 즉, 22,440평을 마련하여 주었고, 그 후 63년도에 대전교구 재단 소유의 8,520평을 다시 사 주었다. 마침내 성광원은 천주교 신앙 나환자촌으로서 봉사단들의 도움도 받게 되었다.